

#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해제 정상화

노조, 쟁의행위 중단 업무복귀 선언 ... 9월2일까지 숨고르며 협상재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과 업무복귀에 따라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정상조업을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8월27일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조업에 복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오전 조부터 공장 가동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업을 벌여오던 노동조합이 차기 집행부 선거기간인 27일부터 9월2일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조의 임금동결 수정안 제시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9월2일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7>